

WEBVTT

00:00:11.294 --> 00:00:13.647

안녕하세요?
장동준 샘입니다.

00:00:13.747 --> 00:00:19.241

이번 시간 장동준의 왕초보
만화 국어 문법.

00:00:19.341 --> 00:00:23.488

생강 국어 문법 네 번째
시간에 와 있네요.

00:00:23.588 --> 00:00:26.220

우리 친구들 정말 열심히 잘
따라 오셔서 고맙습니다.

00:00:26.320 --> 00:00:30.584

이번 시간은 지난 번에 음운
끝내고 단어로 들어갔거든요.

00:00:30.684 --> 00:00:33.261

그러면 단어에서 어떤 거를 배우는지

00:00:33.361 --> 00:00:35.414

우리 친구들이 좀 알아야
되지 않겠습니까?

00:00:35.514 --> 00:00:41.291

그래서 일단 단어를
배운다면 단어가 무엇인지

00:00:41.391 --> 00:00:47.360

그다음에 품사에 대한
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.

00:00:47.460 --> 00:00:51.557

그다음에 형태소.

00:00:51.657 --> 00:01:00.424

그다음에 단어 형성법.

00:01:00.524 --> 00:01:07.905

그다음에 단어들의 의미 관계.

00:01:09.803 --> 00:01:14.786

일단 우리 친구들이 공부하기에
앞서서 어떤 거를 배우느냐,

00:01:14.886 --> 00:01:16.694

이거를 아는 것도
되게 중요하거든요.

00:01:16.794 --> 00:01:20.560

그런데 단어, 품사, 형태소
같은 것도 역시 중요하지만

00:01:20.660 --> 00:01:23.697

하나 하나 다 빠뜨릴 수

없이 다 중요하지만

00:01:23.797 --> 00:01:27.480

여기서 어려운 문제가 나온다
싶은 그런 부분이 있다면

00:01:27.580 --> 00:01:31.328

역시 단어 형성법입니다.

00:01:31.428 --> 00:01:33.067

그다음에 단어들의 의미 관계.

00:01:33.167 --> 00:01:37.785

이거는 어렵지는 않은데 조금 까다로울
수 있어요, 제대로 안 배우면.

00:01:37.885 --> 00:01:40.104

그래서 이 두 가지가 좀
까다로운 부분이고.

00:01:40.204 --> 00:01:42.293

이거는 공부만 해놓으면
어렵지 않은 부분입니다.

00:01:42.393 --> 00:01:47.012

그래서 순서대로 쪽 갈 건데
오늘은 어디까지 할 거냐.

00:01:47.112 --> 00:01:48.679

단어도 1과 2가 있죠.

00:01:48.779 --> 00:01:53.693

강좌 계획 흐름을 보면
단어1, 단어2라고 해서

00:01:53.793 --> 00:01:56.112

단어도 2번에 걸쳐서 끝내거든요.

00:01:56.212 --> 00:02:01.174

그래서 역시 단어 형성법과
단어들의 의미 관계 이전 거.

00:02:01.274 --> 00:02:04.081

기본이 되는 이 부분
단어, 품사, 형태소.

00:02:04.181 --> 00:02:08.649

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
정리를 해볼까 합니다.

00:02:08.749 --> 00:02:11.901

그러면 이거는 다음
시간에 단어 2번,

00:02:12.001 --> 00:02:15.814

그러니까 5장에서 하겠죠.

00:02:15.914 --> 00:02:22.443

그러면 지금부터 59쪽에
보면, 교재 보세요.

00:02:22.543 --> 00:02:26.068

이런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.

00:02:26.168 --> 00:02:31.123

그래서 단어를 분류했을 때
이런 식으로 나눈다는 건데

00:02:31.223 --> 00:02:33.825

어디선가 많이 본 내용입니다.

00:02:33.925 --> 00:02:37.259

글씨가 작아서 안 보일 수도
있는데 책에 잘 나와 있죠?

00:02:37.359 --> 00:02:39.826

이게 다 뭐예요? 품사에
대한 이야기잖아요.

00:02:39.926 --> 00:02:46.196

그래서 품사에 대한
이야기를 하고 갈 겁니다.

00:02:46.296 --> 00:02:48.952

일단 단어가 뭔지 아셔야 되겠는데

00:02:49.052 --> 00:02:51.173

단어는 굳이 정리할 필요가 없어요.

00:02:51.273 --> 00:02:55.803

59쪽에 보면 제가 두 번째 컷에
아주 잘 설명을 해놨습니다.

00:02:55.903 --> 00:03:00.331

단어를 문장에서 자립해서 쓰일
수 있는 최소의 단위이다.

00:03:00.431 --> 00:03:04.777

그런데 여기서 단어의 특성 두 가지를
기억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.

00:03:04.877 --> 00:03:09.034

단어의 특성 첫 번째는 단어 사이에 다른
요소가 끼어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.

00:03:09.134 --> 00:03:12.428

예를 들어서 아버지의
형, 누구입니까?

00:03:12.528 --> 00:03:15.646

아버지의 형이라고 한다면
우리가 뭐라고 불러요?

00:03:15.746 --> 00:03:19.895

큰아버지, 이렇게 부르죠.

00:03:19.995 --> 00:03:24.543

이거는 아버지의 형일 경우예요.

00:03:27.419 --> 00:03:34.913

큰아버지를 부를 때 중간에
다른 요소가 낄 수 있어요?

00:03:35.013 --> 00:03:41.511

큰과 아버지 사이에 뭔가 다른
단어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?

00:03:41.611 --> 00:03:43.256

안 된단 말이에요.

00:03:43.356 --> 00:03:45.846

그래서 이게 지금 하나의
단어이기 때문에

00:03:45.946 --> 00:03:48.945

이 단어 사이에는 다른
요소가 끼어들 수 없다.

00:03:49.045 --> 00:03:52.838

마치 돌덩어리 같은 그런 느낌이다,
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

00:03:52.938 --> 00:03:58.777

하나의 단어는 하나의 돌덩어리,
중간에 끼어들 수가 없어요.

00:03:58.877 --> 00:04:03.771

그리고 만약에 큰아버지가
이런 뜻이 아니고

00:04:03.871 --> 00:04:08.071

그냥 큰 띄고 아버지,
덩치가 큰 아버지.

00:04:08.171 --> 00:04:11.269

이런 의미라면 중간에
뭔가 끼도 되죠.

00:04:11.369 --> 00:04:17.101

덩치가 큰 나의 아버지, 이렇게
중간에 말을 끼어넣기 해도 되고요.

00:04:17.201 --> 00:04:20.384

그런데 하나의 단어일 경우에는
다른 요소가 끼어들 수 없다.

00:04:20.484 --> 00:04:23.885

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가볍게
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.

00:04:23.985 --> 00:04:28.486

그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,
중학교 때 배웠던 건데.

00:04:28.586 --> 00:04:30.626

단어의 특성 두 번째는
여기 나와 있지만

00:04:30.726 --> 00:04:34.835

조사도 단어로 인정한다는 거예요.

00:04:34.935 --> 00:04:38.079

다시 한 번 뭐라고요?

조사도 단어로 인정한다.

00:04:38.179 --> 00:04:47.549
예를 들어서 나는 밥을 먹었다.

00:04:47.649 --> 00:04:51.264
단어 몇 개죠? 이 문장에서
단어 몇 개입니까?

00:04:51.364 --> 00:04:54.165
아마 대부분의 친구들이
이렇게 할 겁니다.

00:04:54.265 --> 00:05:00.309
나, 밥, 먹었다.
3개 아닌가요?

00:05:00.409 --> 00:05:02.368
이렇게 이야기하는
친구들이 많을 거예요.

00:05:02.468 --> 00:05:04.550
그런데 조사도 단어로 인정해요.

00:05:04.650 --> 00:05:07.272
는, 애도 단어이고
을, 애도 단어예요.

00:05:07.372 --> 00:05:10.321
그래서 애는 단어가 5개인 거예요.

00:05:10.421 --> 00:05:14.248
그러면 왜 조사가
단어로 인정되느냐.

00:05:14.348 --> 00:05:17.838
60쪽에 세 번째 컷에
제가 설명해왔습니다.

00:05:17.938 --> 00:05:19.916
조사는 자립할 수
있는 형태소에 붙어서

00:05:20.016 --> 00:05:24.910
쉽게 분리할 수 있기
때문에 단어로 인정한다.

00:05:25.010 --> 00:05:28.745
그래서 그렇게 단어의 특성을
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.

00:05:28.845 --> 00:05:31.079
단어 사이에는 중간에
뭐가 끼어들 수가 없다.

00:05:31.179 --> 00:05:32.858
그다음에 조사도 단어로 인정한다.

00:05:32.958 --> 00:05:36.658
이거는 기본인데, 사실 이런
거로 문제를 내지는 않고요.

00:05:36.758 --> 00:05:39.840

그런데 지금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
이야기해야 되는 것이

00:05:39.940 --> 00:05:41.425

바로 품사입니다.

00:05:41.525 --> 00:05:47.149

여기 나와 있는데 단어는 분류를
했을 때 형태, 기능, 의미.

00:05:47.249 --> 00:05:48.686

이거 기억나시죠?

00:05:48.786 --> 00:05:50.427

이거는 중학교 때 배웠던 거니까.

00:05:50.527 --> 00:05:54.001

그래서 형태, 기능, 의미의
세 가지 분류 기준으로 나눕니다.

00:05:54.101 --> 00:05:56.112

그래서 형태로 나눌 때는 뭐예요?

00:05:56.212 --> 00:05:58.236

가변어, 불변어, 이렇게 나뉘죠?

00:05:58.336 --> 00:06:01.232

가변어는 뭐야? 중학교 때
배웠던 거 확인합니다.

00:06:01.332 --> 00:06:04.482

가변어는 형태가 변하는 거죠.

00:06:04.582 --> 00:06:06.578

그래서 가변어에는 뭐가 있어요?

00:06:06.678 --> 00:06:23.634

가변어에는 형용사, 동사,
그다음에 서술격 조사가 -이다.

00:06:23.734 --> 00:06:27.199

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.
기억나시죠?

00:06:27.299 --> 00:06:32.229

그다음에 이 세 가지 뺀 나머지
것들이 다 불변어잖아요.

00:06:32.329 --> 00:06:34.629

형태가 변하지 않는 거.

00:06:34.729 --> 00:06:37.789

그다음에 기능으로
따지면 기능은 뭐냐.

00:06:37.889 --> 00:06:40.098

형태라는 것이 형태가
변하냐, 안 변하냐.

00:06:40.198 --> 00:06:42.905
그런 문제였다면 기능이라는 것은

00:06:43.005 --> 00:06:47.796
문장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
따라서 다섯 가지로 나뉘죠.

00:06:47.896 --> 00:06:49.847
체인, 수식언, 독립언,
관계언, 용언.

00:06:49.947 --> 00:06:52.244
체인, 문장에서 몸
역할을 하는 거.

00:06:52.344 --> 00:06:54.412
그래서 체인에 해당되는
게 뭐였습니까?

00:06:54.512 --> 00:07:03.134
명사, 대명사, 수사였죠.

00:07:03.234 --> 00:07:07.110
수식어는 꾸며주는 말.

00:07:07.210 --> 00:07:15.061
그래서 관형사, 부사 이런
것들이 꾸며주는 말이었고.

00:07:15.161 --> 00:07:17.910
독립어는 감탄사가 있었죠.

00:07:18.010 --> 00:07:20.482
문장 안에서 독립적으로 쓰이는 말.

00:07:20.582 --> 00:07:24.597
관계언은 문장 안에서 관계를
형성하고 뜻을 더해주는 말.

00:07:24.697 --> 00:07:27.500
그래서 조사가 있었어요.

00:07:27.600 --> 00:07:34.698
용언은 위에 나와 있는
형용사, 동사가 있어요.

00:07:34.798 --> 00:07:36.951
이거는 저고요.

00:07:37.051 --> 00:07:40.132
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
배웠던 기억이 있죠.

00:07:40.232 --> 00:07:44.298
그다음에 의미 부분은 여기 다
써놨으니까 보면 되고요.

00:07:44.398 --> 00:07:49.582
이렇게 해서 사실 이 품사의
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

00:07:49.682 --> 00:07:51.912

일일이 설명하는 것은
큰 의미가 없어요.

00:07:52.012 --> 00:07:53.937

왜? 중학교 때 배웠던 거니까.

00:07:54.037 --> 00:08:05.262

그래서 지금 우리는 60쪽에서
65쪽까지의 내용 있죠?

00:08:05.362 --> 00:08:10.643

그거를 보면 전반적인 품사에
대한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.

00:08:10.743 --> 00:08:13.190

하지만 제가 이렇게
만화만 보라고 한다면

00:08:13.290 --> 00:08:15.122

강좌를 찍은 의미가 없죠.

00:08:15.222 --> 00:08:18.610

그래서 여기서 만화를
봐도 다 이해가 되겠지만

00:08:18.710 --> 00:08:22.530

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
포인트 부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.

00:08:22.630 --> 00:08:26.272

시험에도 잘 출제되는
요소, 그 부분들.

00:08:30.950 --> 00:08:35.590

일단 형태소 가기 전에 품사부터.

00:08:35.690 --> 00:08:38.461

일단 아까 전에 가변어,
불변어 이야기를 했으니까

00:08:38.561 --> 00:08:40.252

가변어는 아까 전에 이야기했죠?

00:08:40.352 --> 00:08:41.683

형용사, 동사, 서술격
조사 -이다 빼고는

00:08:41.783 --> 00:08:43.336

나머지는 다 불변어다.

00:08:43.436 --> 00:08:46.008

그 형태소는 특별히 더 많은
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고요.

00:08:46.108 --> 00:08:52.107

이제 기능과 의미, 이 부분을
이야기를 해야 되는데.

00:08:52.207 --> 00:08:54.734

체언에 해당되는 게

일단 뭐라 그랬어요?

00:08:54.834 --> 00:08:55.852
명사죠.

00:08:55.952 --> 00:09:01.506
그래서 61쪽에 만화를 보면서
함께 쪽 따라가보겠습니다.

00:09:01.606 --> 00:09:07.094
명사는 61쪽에 일곱
번째 컷에 나와 있죠.

00:09:07.194 --> 00:09:10.252
명사부터 점검합니다.

00:09:10.352 --> 00:09:17.024
체언의 명사부터 점검해요.

00:09:17.124 --> 00:09:20.247
명사는 대상의 구체적인 이름을
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.

00:09:20.347 --> 00:09:23.063
그래서 이름 명, 말씀 사 자죠.

00:09:23.163 --> 00:09:27.815
고유 명사도 있고 보통
명사도 있습니다.

00:09:27.915 --> 00:09:30.013
그다음에 명사를 분류할 때

00:09:30.113 --> 00:09:33.054
자립 명사와 의존 명사로
분류하는 경우도 있는데.

00:09:33.154 --> 00:09:36.267
자립 명사는 홀로
쓰일 수 있는 명사.

00:09:36.367 --> 00:09:38.650
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
있는 그런 명사들이고.

00:09:38.750 --> 00:09:41.665
명사에서 우리가 조심해야
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.

00:09:41.765 --> 00:09:45.375
바로 뭐냐면 의존
명사가 되겠습니다.

00:09:45.475 --> 00:09:46.684
다시 한 번요.

00:09:46.784 --> 00:09:52.971
명사는 고유 명사와 보통
명사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.

00:09:53.071 --> 00:09:55.067

자립 명사와 의존 명사로
나누기도 하는데

00:09:55.167 --> 00:09:59.471
명사의 다양한 종류 중에서 우리가
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

00:09:59.571 --> 00:10:03.800
그 부분은 바로 의존 명사다.

00:10:03.900 --> 00:10:07.706
제가 미리 공부를 해둬야 되는
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.

00:10:07.806 --> 00:10:11.513
그냥 넘어갈까 봐.

00:10:11.613 --> 00:10:13.555
사실 명사는 쉽잖아요.

00:10:13.655 --> 00:10:16.285
그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,
이렇게 끝내고 넘어갈 수 있잖아요.

00:10:16.385 --> 00:10:20.143
그런데 의존 명사는 좀 다르다.

00:10:20.243 --> 00:10:24.395
왜냐하면 의존 명사 부분을 보면,

00:10:24.495 --> 00:10:28.669
61쪽에 밑에 부분을 보면

00:10:28.769 --> 00:10:33.967
모든 의존 명사는 관형어와 함께
쓰입니다, 이렇게 되어 있어요.

00:10:34.067 --> 00:10:36.037
이거 중요한 거예요.

00:10:36.137 --> 00:10:41.342
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알아두냐면
이렇게 공식처럼 알아두세요.

00:10:45.084 --> 00:10:51.345
관형어 띄고 의존 명사.

00:10:53.684 --> 00:10:59.797
의존 명사라고 했다면 명사가
어딘가에 의존하고 있다는 겁니다.

00:10:59.897 --> 00:11:02.987
그 무엇가에 의존하지 않으면

00:11:03.087 --> 00:11:06.035
그 의존 명사가 혼자서는
못 쓰인다는 거예요.

00:11:06.135 --> 00:11:07.747
이해되십니까?

00:11:07.847 --> 00:11:09.838

그러면 의존 명사는
어디에 의존하느냐.

00:11:09.938 --> 00:11:13.172

바로 그 앞에 있는
관형어에 의존합니다.

00:11:13.272 --> 00:11:17.021

그래서 의존 명사가 있으면
반드시 그 앞에는 뭐가 있다?

00:11:17.121 --> 00:11:19.392

띄고 관형어가 있습니다.

00:11:19.492 --> 00:11:20.826

붙어있는 거는 아니에요.

00:11:20.926 --> 00:11:24.516

제가 띄는 거 일부로 띄게
아니에요, 띄어 써야 되니까.

00:11:24.616 --> 00:11:26.381

그래서 관형어가 있어요.

00:11:26.481 --> 00:11:31.422

예를 들면 의존 명사
종류가 되게 많은데

00:11:31.522 --> 00:11:35.432

대표적으로 것, 바, 수,
지, 데 이런 것들이 있죠.

00:11:35.532 --> 00:11:37.213

만큼도 있고.

00:11:37.313 --> 00:11:43.040

예를 한번 들어볼까요?

00:11:43.140 --> 00:11:51.198

먹을 만큼 먹어라.

00:11:51.298 --> 00:11:54.641

이때 만큼이 됩니까?

00:11:54.741 --> 00:11:59.546

이게 관형어고

00:11:59.646 --> 00:12:03.165

애가 의존 명사에요.

00:12:03.265 --> 00:12:06.366

만큼을 보고 이거 의존
명사, 이거 관형어.

00:12:06.466 --> 00:12:11.377

띄어 쓰기 됐고, 이렇게 관계를
알아두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.

00:12:11.477 --> 00:12:14.303

더 쉬운 거로 해볼까요?

00:12:14.403 --> 00:12:19.860
나는 할 수 있다.

00:12:19.960 --> 00:12:22.510
나는 문법을 정복할 수 있다.

00:12:22.610 --> 00:12:25.554
이렇게 우리 친구들이
의지를 다졌겠죠?

00:12:25.654 --> 00:12:30.623
이 수가 바로 의존 명사예요.

00:12:30.723 --> 00:12:35.627
그러면 띄어 쓰기 되어 있고
그 앞에 있는 할은 뭐예요?

00:12:35.727 --> 00:12:37.196
애가 바로 관형어예요.

00:12:37.296 --> 00:12:38.551
그러니까 수는 할에
의존하고 있는 거예요.

00:12:38.651 --> 00:12:39.778
그러면 잘 보세요.

00:12:39.878 --> 00:12:42.927
만큼 혼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.

00:12:43.027 --> 00:12:44.793
혼자서는 못 쓰여요.

00:12:44.893 --> 00:12:47.675
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,
관형어가 있어야 돼요.

00:12:47.775 --> 00:12:51.270
여기서 관형어.

00:12:51.370 --> 00:12:55.971
그래서 이렇게 의존 명사
부분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.

00:12:56.071 --> 00:12:59.916
의존 명사가 있었을 때
그게 의존 명사라고

00:13:00.016 --> 00:13:04.169
딱 알아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.

00:13:04.269 --> 00:13:08.632
그다음 체언에서 대명사
부분 볼게요.

00:13:08.732 --> 00:13:13.308
이번에는 대명사.

00:13:13.408 --> 00:13:17.290
대명사는 말 그대로 명사를

대신하여 가리키는 말이다.

00:13:17.390 --> 00:13:19.425
이렇게 61쪽에 나와 있죠.

00:13:19.525 --> 00:13:21.819
대명사의 대 자가 무슨 대 자야?

00:13:21.919 --> 00:13:28.920
큰 대 자가 아니고
대신할 대 자죠.

00:13:29.020 --> 00:13:32.450
그래서 대명사는 그것이
무엇을 가리키냐에 따라

00:13:32.550 --> 00:13:35.893
크게 지시 대명사와 인칭
대명사로 나눌 수 있는데

00:13:35.993 --> 00:13:39.380
지시 대명사에는 이런 게 있고,
62쪽으로 넘어가세요.

00:13:39.480 --> 00:13:43.315
인칭 대명사에는 이런 게
있고 이렇게 나뉘죠.

00:13:43.415 --> 00:13:46.490
그래서 쪽 한번 읽어보면
되는 부분이에요.

00:13:46.590 --> 00:13:49.033
깊게 설명할 부분은
아닌 것 같습니다.

00:13:49.133 --> 00:13:54.001
미지칭, 부정칭, 재귀칭 한번
읽어보면 다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.

00:13:54.101 --> 00:13:59.624
그다음에 수사를 보면,

00:13:59.724 --> 00:14:05.437
제가 굳이 설명을 추가적으로 해야
되는 부분들 중심으로 갈게요.

00:14:05.537 --> 00:14:08.041
다 이거 배웠던 건데.

00:14:08.141 --> 00:14:13.999
수사는 수를 나타내는 말인데
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.

00:14:14.099 --> 00:14:20.202
양수사가 있고 서수사가 있다.

00:14:20.302 --> 00:14:22.631
양수사는 수량이죠.

00:14:22.731 --> 00:14:25.439

하나, 둘, 셋, 넷 수량.

00:14:25.539 --> 00:14:27.352
그런데 서수사는 순서죠.

00:14:27.452 --> 00:14:31.084
one, two, three랑 first,
second, third랑은 다른 개념이죠.

00:14:31.184 --> 00:14:36.734
그래서 서수사는 순서를
나타내는 말이에요.

00:14:36.834 --> 00:14:39.741
그렇게 설명이 되어있는데
여기서 중요한 거.

00:14:39.841 --> 00:14:45.980
지금 수사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
수사와 수관형사를 구별하는 거,

00:14:46.080 --> 00:14:47.890
이게 포인트죠.

00:14:47.990 --> 00:14:56.943
수사와 수관형사의 구별이다.

00:14:57.043 --> 00:15:01.173
이게 시험 문제 낼 때
잘 써먹는 파트죠.

00:15:01.273 --> 00:15:05.306
우리 친구들의 자주 틀리니까
저도 여기에 써놨는데,

00:15:05.406 --> 00:15:10.751
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.
구별 한번 해볼까요?

00:15:14.247 --> 00:15:17.124
첫째 아들.

00:15:17.224 --> 00:15:22.904
그다음에 우리 첫째가 이번에
시험을 잘 봤는데,

00:15:23.004 --> 00:15:24.331
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.

00:15:24.431 --> 00:15:26.804
그럴 때 앞에 있는 첫째랑
뒤에 있는 첫째,

00:15:26.904 --> 00:15:29.690
이게 품사가 다르다는 거예요.

00:15:29.790 --> 00:15:31.487
이거는 뭐예요?

00:15:31.587 --> 00:15:34.804
둘 다 똑같이 첫째지만

둘 다 수를 나타내는 거죠.

00:15:34.904 --> 00:15:36.087

순서를 나타내는 거죠, 첫째.

00:15:36.187 --> 00:15:38.470

그러니까 서수사에 해당되는 건데

00:15:38.570 --> 00:15:40.345

이거는 뒤에 아들이 있잖아요.

00:15:40.445 --> 00:15:42.592

뒤에 꾸밈을 받는 말이 오잖아요?

00:15:42.692 --> 00:15:44.898

첫째가 아들을 꾸며주게 되잖아요?

00:15:44.998 --> 00:15:48.407

이렇게 되면 애는 지금 관형어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

00:15:48.507 --> 00:15:51.011

애는 수관형사예요.

00:15:51.111 --> 00:15:53.444

수사라고 보지 않습니다.

00:15:53.544 --> 00:15:56.557

그런데 첫째가, 지금 보면 어때요?

00:15:56.657 --> 00:15:58.865

이렇게 조사가 왔죠.

00:15:58.965 --> 00:16:01.345

물론 조사가 붙을 수도 있고 안 붙을 수도 있어요.

00:16:01.445 --> 00:16:04.944

그래서 이럴 때, 이때는 지금 뭔가를 꾸며주는 역할이 아니고

00:16:05.044 --> 00:16:08.218

말 그대로 서수사의 역할, 순서의 역할만 하고 있으니까

00:16:08.318 --> 00:16:11.211

애는 지금 수사라고 할 수 있는 거죠.

00:16:11.311 --> 00:16:14.882

그래서 수사와 수관형사로 구분하는 방법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.

00:16:14.982 --> 00:16:16.986

수관형사만 파악하면 되죠.

00:16:17.086 --> 00:16:19.277

왜? 수관형사 뒤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?

00:16:19.377 --> 00:16:22.794

꾸밈을 받는 말이 반드시 있다.

00:16:22.894 --> 00:16:25.899

수사 뒤에는 조사가 붙을 수도 있고 붙지 않을 수도 있어요.

00:16:25.999 --> 00:16:29.183

조사가 반드시 붙는 거는 아닙니다.

00:16:29.283 --> 00:16:32.528

그래서 이거를 기억
해주셔야 되고요.

00:16:32.628 --> 00:16:39.585

체언은 끝났고 그다음에 수식언.

00:16:39.685 --> 00:16:45.246

수식언은 여기서
관형사와 부사가 있죠.

00:16:49.168 --> 00:16:53.085

관형사는 체언을 꾸며주는
말, 이렇게 나와 있죠.

00:16:53.185 --> 00:16:55.725

체언 앞에 놓여서 체언을
꾸며주는 단어인데

00:16:55.825 --> 00:16:59.703

62쪽 마지막 컷에 보면
조사와 결합할 수 없고

00:16:59.803 --> 00:17:02.777

형태가 변하지 않는다는
특징이 있다.

00:17:02.877 --> 00:17:04.317

그런 이야기가 있고요.

00:17:04.417 --> 00:17:14.164

그다음에 63쪽에 보면 관형사에는
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

00:17:14.264 --> 00:17:18.896

지시 관형사 이, 그, 저처럼 어떤
대상을 가리키는 지시 관형사와

00:17:18.996 --> 00:17:23.525

새, 흰처럼 사물의 성질이나
상태를 꾸며주는 성상 관형사.

00:17:23.625 --> 00:17:25.983

성질이나 상태.

00:17:26.083 --> 00:17:34.261

그다음에 수량이나 순서 등 수개념을
나타내는 수관형사로 나눌 수 있다.

00:17:34.361 --> 00:17:40.125

그래서 이렇게 관형사도
세 가지로 나뉜다.

00:17:40.225 --> 00:17:44.117

지시 관형사, 성상 관형사,
수관형사의 기본적인 것들은

00:17:44.217 --> 00:17:46.505

알아두시면 좋겠고요.

00:17:46.605 --> 00:17:50.496

지시 관형사,

00:17:50.596 --> 00:17:54.755

그다음에 수사와 수관형사의
구분, 수관형사.

00:17:54.855 --> 00:17:58.458

이렇게 있었죠.

00:17:58.558 --> 00:18:02.435

그다음에 부사는 주로 용언을
수식하는 건데, 주로 용언이죠.

00:18:02.535 --> 00:18:04.581

부사는 약간 올어라운드
플레이어예요.

00:18:04.681 --> 00:18:06.661

용언만 수식하지 않고
다른 것도 수식합니다.

00:18:06.761 --> 00:18:15.336

여기 만화 속에서는
자세하게 쓰지 않았지만

00:18:15.436 --> 00:18:20.017

부사가 용언을 수식하기도 하고
같은 부사를 수식할 수도 있고요.

00:18:20.117 --> 00:18:24.003

때로는 체언을 수식하기도
합니다, 드물지만.

00:18:24.103 --> 00:18:28.689

그런 식으로 부사는 다양한
문장 성분을 수식합니다.

00:18:28.789 --> 00:18:32.008

여기서는 제가 이것을 강조했죠.

00:18:32.108 --> 00:18:34.847

성분 부사와 문장 부사다.

00:18:34.947 --> 00:18:38.334

그래서 성분 부사는 문장 안에
특정 성분을 수식하는 부사이고

00:18:38.434 --> 00:18:41.068

문장 부사는 문장 전체를
수식하는 부사이다.

00:18:41.168 --> 00:18:43.272

과연, 이런 것들이 있죠.

00:18:43.372 --> 00:18:46.030

과연, 그러나 이런 접속 부사.

00:18:46.130 --> 00:18:48.034

이런 것들에 해당돼요.

00:18:48.134 --> 00:18:50.668

그다음에 독립언, 감탄사.

00:18:50.768 --> 00:18:54.595

문장 속에 다른 성분에 얹매이지 않고 독립성을 지닌 말이다.

00:18:54.695 --> 00:18:59.593

그래서 감탄사는 거기 63쪽에 밑에서 두 번째 컷 보면,

00:18:59.693 --> 00:19:04.746

부름, 응답, 놀람, 느낌 이런 것들을 나타낸다고 되어 있죠.

00:19:04.846 --> 00:19:08.695

감탄사의 위치가 문장 첫 머리에 오는 경우도 있지만

00:19:08.795 --> 00:19:12.289

문장 속에 놓이는 경우도 있다.

00:19:12.389 --> 00:19:15.920

그래서 감탄사에 대한 이야기도 언급을 해드렸고.

00:19:16.020 --> 00:19:19.700

관계언, 조사.

00:19:22.745 --> 00:19:25.821

조사는, 이거는 알아두세요.

00:19:25.921 --> 00:19:28.139

조사는 세 가지로 나뉜다.

00:19:28.239 --> 00:19:30.029

격조사.

00:19:30.129 --> 00:19:34.005

주격 조사, 목적격 조사, 관형격 조사할 때 조사.

00:19:34.105 --> 00:19:36.533

그다음에 보조사.

00:19:36.633 --> 00:19:44.937

접속 조사,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뉜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.

00:19:45.037 --> 00:19:51.665

격조사는 앞말이 문장 안에서 가지는, 64쪽이에요.

00:19:51.765 --> 00:19:54.149
격조사는 앞말이 문장 안에서 가지는

00:19:54.249 --> 00:19:56.782
일정한 자격을 나타내주는
조사를 말하는 것으로

00:19:56.882 --> 00:19:59.815
체언과 격조사가
결합하면 어떻게 된다?

00:19:59.915 --> 00:20:02.654
주어, 목적어, 보어, 관형어,
부사어, 독립어, 서술어로써의

00:20:02.754 --> 00:20:04.213
자격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.

00:20:04.313 --> 00:20:09.031
예를 들어서 격조사
중에, 많잖아요.

00:20:09.131 --> 00:20:10.691
종류 많잖아요.

00:20:10.791 --> 00:20:17.330
주격 조사도 있고
목적격 조사도 있고

00:20:17.430 --> 00:20:27.021
관형격, 서술격 등등.

00:20:27.121 --> 00:20:34.463
예를 들어서 학생이라고
하는 명사에 격조사 중에

00:20:34.563 --> 00:20:37.933
서술격 조사, 이다가
붙으면 어떻게 됩니까?

00:20:38.033 --> 00:20:40.222
서술어가 돼요.

00:20:40.322 --> 00:20:42.551
그러니까 서술격 조사는
앞에 있는 말을

00:20:42.651 --> 00:20:47.808
서술어의 지위를 부여해주는 그런
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.

00:20:47.908 --> 00:20:51.638
서술어의 격을 부여해준다,
자격을 부여해줍니다.

00:20:51.738 --> 00:20:57.724
그러면 경수, 제 제자 이름
중에 경수라는 이름이 있어요.

00:20:57.824 --> 00:20:59.897
김경수가 있어요.

00:20:59.997 --> 00:21:04.035
경수가 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?

00:21:04.135 --> 00:21:05.849
경수라는 명사에 가가 붙음으로써

00:21:05.949 --> 00:21:08.762
지금 이 가가 명수에게
어떤 자격을 부여했어요?

00:21:08.862 --> 00:21:12.051
주격이라는 주어가 될 수
있는 자격을 부여했어요.

00:21:12.151 --> 00:21:13.884
그러니까 이거는 격조사예요.

00:21:13.984 --> 00:21:16.458
특히 주격 조사는 주어로
만들어주는 조사.

00:21:16.558 --> 00:21:19.437
목적격은 앞에 있는 말을
목적어로 만들어주는 조사.

00:21:19.537 --> 00:21:23.310
목적어의 자격을 부여하는 조사,
이렇게 기억하면 돼요.

00:21:23.410 --> 00:21:25.974
이해되시나요?

00:21:26.074 --> 00:21:31.011
보조사는 앞말에 특별한
뜻을 더해주는 조사인데,

00:21:31.111 --> 00:21:39.901
대표적으로 은, 는, 도,
만 이런 것들이 있죠.

00:21:40.001 --> 00:21:45.547
이거 말고도 정말 많은데 대표적으로
많이 보이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고.

00:21:45.647 --> 00:21:49.153
그래서 은, 는은 대조의
뜻을 더해준다.

00:21:49.253 --> 00:21:51.967
도는 역시, 또한의 뜻을 더해준다.

00:21:52.067 --> 00:21:54.015
만은 단독의 뜻을 더해준다.

00:21:54.115 --> 00:21:56.716
너만 사랑한다,
너만이 단독.

00:21:56.816 --> 00:21:59.940
사랑하는 존재가 너 하나밖에

없다는 그런 이야기죠.

00:22:00.040 --> 00:22:02.969

오직, 그런 의미를 더해주고요.

00:22:03.069 --> 00:22:06.402

접속 조사는 말 그대로 두 단어를
같은 자격으로 이어주는 거죠.

00:22:06.502 --> 00:22:19.223

그래서 와, 과라든지
또는 랑, 이랑

00:22:19.323 --> 00:22:22.348

하고, 이런 것들이 있죠.

00:22:22.448 --> 00:22:27.162

그래서 조사도 종류가 이렇게
나뉘진다는 기억하셔야 되고요.

00:22:27.262 --> 00:22:33.986

그다음에 마지막으로
용언 체크를 해보면

00:22:34.086 --> 00:22:37.954

형용사와 동사가 있잖아요.

00:22:38.054 --> 00:22:44.147

형용사는 상태, 성질 동사는
움직임 이렇게 알면 편한데.

00:22:44.247 --> 00:22:48.430

여기 보면 동사는 주어의
움직임이나 작용을 나타낸다.

00:22:48.530 --> 00:22:51.569

형용사는 주어의 성질이나
상태를 나타내는 거다.

00:22:51.669 --> 00:22:54.478

여기서는 제가 자세히
이야기를 안 했지만

00:22:54.578 --> 00:23:00.763

포인트가 되는 것은 바로
형용사와 동사 구분법이에요.

00:23:03.744 --> 00:23:07.621

주로 이런 식으로 많이 구분합니다.

00:23:07.721 --> 00:23:12.931

구분법은 형, 명,
청을 적용해 보았을 때

00:23:13.031 --> 00:23:23.518

현재형, 명령형, 청유형으로 바뀌
봤을 때 자연스럽게 되면 동사,

00:23:23.618 --> 00:23:30.498

이렇게 안 되면 형용사,
이렇게 보는 거예요.

00:23:30.598 --> 00:23:32.555
이해되시나요?

00:23:34.932 --> 00:23:40.217
헛갈리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.

00:23:40.317 --> 00:23:44.286
아프다.

00:23:44.386 --> 00:23:47.342
제가 문제 내겠습니다, 맞춰보세요.

00:23:47.442 --> 00:23:51.582
아프다는 동사예요, 형용사예요?

00:23:51.682 --> 00:23:53.891
그러면 이제 고민이 될 겁니다.
왜?

00:23:53.991 --> 00:23:56.969
아프다, 아픈 상태일 것 같은데?

00:23:57.069 --> 00:24:02.035
잠깐만, 그런데 아픈 거는 막 끙끙
거리면서 땀도 흘리고 그러니까

00:24:02.135 --> 00:24:05.900
뭔가 움직임도 있는 거 아닌가?

00:24:06.000 --> 00:24:08.924
헛갈리잖아 동사인가?
형용사인가?

00:24:09.024 --> 00:24:12.719
그런데 형, 명, 청을
한번 적용해보면 돼요.

00:24:12.819 --> 00:24:14.673
셋 중에 하나만 해봅시다.

00:24:14.773 --> 00:24:18.591
현재형, 아픈다.
말 됩니까? 안 됩니까?

00:24:18.691 --> 00:24:20.453
자연스러워요, 안 자연스러워요?

00:24:20.553 --> 00:24:21.842
안 자연스럽죠.

00:24:21.942 --> 00:24:26.039
그러면 안 자연스러우니까
형용사예요, 반대니까.

00:24:26.139 --> 00:24:29.017
어때요? 쉽죠?
이렇게 하는 거예요.

00:24:29.117 --> 00:24:32.910
그래서 현재형, 명령형,

청유형으로 바뀌 봤을 때

00:24:33.010 --> 00:24:35.474
되면 동사이고 안 되면 형용사이다.

00:24:35.574 --> 00:24:39.128
아주 깔끔한 수학 공식과
같은 그런 법칙이기 때문에

00:24:39.228 --> 00:24:45.276
기억하면 아주 많은 도움이
될 거라는 거죠.

00:24:45.376 --> 00:24:52.317
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중학교 때
배웠던 거 확인을 해봤고요.

00:24:52.417 --> 00:24:56.525
이제 형태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.

00:24:56.625 --> 00:24:59.611
오늘은 형태소 보고
단어의 구성 요소인

00:24:59.711 --> 00:25:01.818
어근과 접사 개념까지
하고 끝낼 거고.

00:25:01.918 --> 00:25:04.208
다음 시간부터 단어의
형성법 들어갈 건데.

00:25:04.308 --> 00:25:06.611
형태소, 여기 지금
뭐라고 되어있어요?

00:25:06.711 --> 00:25:09.329
이게 저고 이게 여러분이예요.

00:25:09.429 --> 00:25:13.957
그러니까 형태소는 더 이상
나눌 수 없어요, 있어요?

00:25:14.057 --> 00:25:16.030
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,

00:25:16.130 --> 00:25:17.151
더 이상 나눌 수가 없습니다.

00:25:17.251 --> 00:25:19.396
제가 질문하고 제가 대답했네요.

00:25:19.496 --> 00:25:22.238
형태소에 대한 개념 다시
한 번 잡아보겠습니다.

00:25:22.338 --> 00:25:25.478
66쪽에 보면 형태소라고 해서

00:25:25.578 --> 00:25:33.819
형태소는 세 번째 컷에

뭐라고 정의했죠?

00:25:33.919 --> 00:25:52.641

형태소는 뜻을 가진
가장 작은 말의 단위.

00:26:01.296 --> 00:26:05.606

이렇게 써드렸죠.

00:26:05.706 --> 00:26:09.297

뜻을 가진 작은 거니까 더 이상
나눌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.

00:26:09.397 --> 00:26:12.328

그러니까 더 이상 나눌 수 없다.

00:26:12.428 --> 00:26:16.529

더 이상 쪼갤 수 없다,
더 이상 나눌 수 없다는

00:26:16.629 --> 00:26:19.810

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.

00:26:19.910 --> 00:26:27.922

여기 교재에 예를 들었습니다만,
밤나무를 보세요.

00:26:28.022 --> 00:26:31.559

밤과 나무 쪼개지죠?

00:26:31.659 --> 00:26:36.090

그런데 나무도 쪼갤 수 있어요?
안 되죠.

00:26:36.190 --> 00:26:38.339

나는 나고 무는 무예요?

00:26:38.439 --> 00:26:41.160

그게 아니고 이렇게 쪼개는
순간 나무의 의미가 사라져요.

00:26:41.260 --> 00:26:46.632

그래서 지금 형태소는 밤도
형태소고 나무도 형태소예요.

00:26:46.732 --> 00:26:50.764

더 이상 쪼갤 수 없어요.
이해되지죠?

00:26:50.864 --> 00:26:54.177

그런데 형태소는 이렇게만
설명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

00:26:54.277 --> 00:26:56.181

형태소의 종류를 아셔야 되죠.

00:26:56.281 --> 00:27:00.536

그래서 66쪽에 아래 보면
형태소의 개념을 알았다면

00:27:00.636 --> 00:27:03.510

형태소의 종류를 아는 것도 중요하죠,
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.

00:27:03.610 --> 00:27:08.215

그래서 형태소를 나누는
것도 중요한데

00:27:08.315 --> 00:27:10.121

형태소는 어떻게 나뉘요?

00:27:10.221 --> 00:27:13.393

형태소의 개념을 알았다면

00:27:13.493 --> 00:27:19.281

형태소의 종류도 우리가 정리를
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.

00:27:19.381 --> 00:27:21.985

그래서 만화에서 제가
설명을 쉽게 해놨지만

00:27:22.085 --> 00:27:23.711

어떤 거를 기준으로?

00:27:23.811 --> 00:27:26.641

두 가지 기준에 의해서 분류가 되는데요?
라고 했잖아요.

00:27:26.741 --> 00:27:38.016

자립성 유무, 자립성이
있느냐 없느냐로

00:27:38.116 --> 00:27:40.368

일단 하나를 나눌 수 있어요.

00:27:40.468 --> 00:27:43.294

자립성 유무로 자립성이
있으면 뭐다?

00:27:43.394 --> 00:27:48.060

자립 형태소다.

00:27:52.340 --> 00:27:56.097

제가 아까 쓰다가 부러뜨려서
쓰기가 힘들어요.

00:27:56.197 --> 00:28:03.841

그다음에 자립성이
무면 의존 형태소다.

00:28:08.049 --> 00:28:11.983

이런 기준으로 두 가지로 나뉘고.

00:28:12.083 --> 00:28:16.484

그다음에 의미의 유형으로

00:28:16.584 --> 00:28:20.035

어떤 데서는 실질적 의미의
유무, 이렇게 이야기도 하지만

00:28:20.135 --> 00:28:26.411

의미의 유형이라는 말도 많이 써요.

00:28:26.511 --> 00:28:31.801

실질 형태소, 실질적인
의미가 있는 형태소.

00:28:31.901 --> 00:28:34.293

그다음에 의미가 없는 게 아니고

00:28:34.393 --> 00:28:37.753

형식적인 의미, 문법적인
의미가 있는 그런 형태소를

00:28:37.853 --> 00:28:43.894

형식 형태소라고도 이렇게 합니다.

00:28:43.994 --> 00:28:47.831

그래서 형태소의 종류를
두 가지 기준으로

00:28:47.931 --> 00:28:53.395

4개로 펼쳐서 이야기할
수 있단 말이죠.

00:28:53.495 --> 00:28:56.090

그런데 여기서 시험 포인트가 뭐냐면

00:28:56.190 --> 00:28:59.524

책에도 당연히 이야기를 했지만요.

00:28:59.624 --> 00:29:01.948

관형사어 부사, 이것을
조심해야 됩니다.

00:29:02.048 --> 00:29:04.562

왜냐하면 관형사어 부사는
일단 자립 형태소거든요.

00:29:04.662 --> 00:29:07.990

그런데 관형사어 부사를 의존
형태소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.

00:29:08.090 --> 00:29:10.922

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.

00:29:11.022 --> 00:29:12.885

새 구두.

00:29:12.985 --> 00:29:15.790

여기서 새가 구두를 꾸며주잖아요.

00:29:15.890 --> 00:29:20.690

새는 뭐예요? 품사가 관형사죠.

00:29:20.790 --> 00:29:23.175

그러면 학생들이 이렇게
오해를 하더라고요.

00:29:23.275 --> 00:29:27.480

새 구두니까 새는 반드시 뒤에
구두가 있어야만 되는 거니까

00:29:27.580 --> 00:29:30.108

애는 구두에 의존하고
있다고 생각하더라고요.

00:29:30.208 --> 00:29:34.328

그런데 여기서 의존이라는 개념을
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.

00:29:34.428 --> 00:29:39.164

의존이 뭐냐면 어딘가에
붙어야만 되는 것들이에요.

00:29:39.264 --> 00:29:41.238

붙어야만 되는 것들, 마치 조사.

00:29:41.338 --> 00:29:45.915

조사도 앞에 말과 반드시 붙어야만
이게 기능을 할 수 있잖아요.

00:29:46.015 --> 00:29:49.017

그런데 애는 지금 붙은
거는 아니잖아요.

00:29:49.117 --> 00:29:52.319

새가 반드시 구두에 붙어야만
기능할 수 있는 거는 아니죠.

00:29:52.419 --> 00:29:58.225

떨어져서 각자 자기의 의미를
보여주고 있기 때문에

00:29:58.325 --> 00:30:02.761

관형사는, 또 부사도 마찬가지로

00:30:02.861 --> 00:30:06.326

많이 먹다, 이렇게 했을 때

00:30:06.426 --> 00:30:16.183

부사 많이, 이런 것들도 부사어.

00:30:16.283 --> 00:30:22.174

이런 것들도 자립 형태소로 보지
의존 형태소로 보지는 않는다는 거.

00:30:22.274 --> 00:30:24.938

그 의존 형태소가 뭐예요?
이것만 알면 되죠.

00:30:25.038 --> 00:30:26.518

이거 빼고 나머지는 다 자립이에요.

00:30:26.618 --> 00:30:39.157

조사, 어간, 어미,
접사 네 가지.

00:30:39.257 --> 00:30:41.203

이 네 가지가 의존 형태소예요.

00:30:41.303 --> 00:30:45.148

그리고 실질 형태소는

어간이 실질 형태소니까

00:30:45.248 --> 00:30:48.551
여기서 그대로 어간만 빠지면 조사,

00:30:48.651 --> 00:30:53.574
문법적인 의미를 가진
거 어미, 접사.

00:30:53.674 --> 00:30:56.194
이렇게 되면 형식
형태소가 되는 거죠.

00:30:56.294 --> 00:30:58.843
이거 빼고 나머지 다 실질적
의미를 가진 거다.

00:30:58.943 --> 00:31:00.287
이렇게 보는 거죠.

00:31:00.387 --> 00:31:03.503
그래서 이렇게 알아두는 게
가장 깔끔하다는 거예요.

00:31:03.603 --> 00:31:06.767
중학교 때 배웠던 건데
자세하게 설명해드렸어요.

00:31:06.867 --> 00:31:11.008
만약에 이 정도도 전혀
간파를 못했다고 한다면

00:31:11.108 --> 00:31:13.534
질문을 해주세요, Q&A에.

00:31:13.634 --> 00:31:18.208
그러면 거기 68쪽으로
넘어가보세요.

00:31:18.308 --> 00:31:21.266
그러면 고등학교 개념 하나 나와요.

00:31:21.366 --> 00:31:26.404
이형태라는 개념이 나옵니다.

00:31:29.522 --> 00:31:32.519
애네들이 뭐라고
이야기하고 있습니까?

00:31:32.619 --> 00:31:38.630
하늘가? 경수이? 이런 식으로
조사를 붙였는데 어색하죠.

00:31:38.730 --> 00:31:41.189
지금 주격 조사를
잘못 붙여서 그래요.

00:31:41.289 --> 00:31:42.439
무슨 이야기냐?

00:31:42.539 --> 00:31:44.895

이형태의 개념을 잠깐 보겠습니다.

00:31:44.995 --> 00:31:47.203
68쪽에 다섯 번째 컷에 보면,

00:31:47.303 --> 00:31:50.480
이형태라는 것은 단어
앞뒤의 음운 환경에 따라

00:31:50.580 --> 00:31:52.651
형태를 달리하는 형태소다.

00:31:52.751 --> 00:31:55.583
그래서 거기 보면 다음
두 예문을 볼까요?

00:31:55.683 --> 00:32:00.989
하늘가 매우 푸르다.

00:32:01.089 --> 00:32:08.801
경수이 밥을 먹는다,
이렇게 되어있죠.

00:32:08.901 --> 00:32:11.931
그런데 이게 지금 잘못된 거죠.

00:32:12.031 --> 00:32:14.627
주격 조사는 이와 가가 있는데

00:32:14.727 --> 00:32:19.850
이와 가, 이거는 문법적
의미가 똑같은데

00:32:19.950 --> 00:32:23.605
앞에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
달리 쓰이는 것들이거든요.

00:32:23.705 --> 00:32:25.333
그게 바로 이형태예요.

00:32:25.433 --> 00:32:28.576
그러니까 의미는 같은데 단어
앞뒤의 음운 환경에 따라서

00:32:28.676 --> 00:32:30.876
형태를 달리하는 거예요,
의미는 같지만.

00:32:30.976 --> 00:32:39.761
그래서 앞에 자음이 오면 가가
아니고 이가 와야 되죠.

00:32:39.861 --> 00:32:47.924
앞에가 모음으로 끝나면 이가
아니고 가가 와야 돼요.

00:32:48.024 --> 00:32:50.943
그래서 의미는 같지만 앞에
어떤 거가 오느냐에 따라서

00:32:51.043 --> 00:32:54.583

음운 환경에 따라서
형태를 달리하는,

00:32:54.683 --> 00:32:58.396
이런 것들이 이형태라는 거예요.

00:32:58.496 --> 00:33:02.057
그래서 68쪽에 보면
설명을 쪽 읽어보면

00:33:02.157 --> 00:33:04.749
확실히 더 이해가 잘 될 수
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.

00:33:04.849 --> 00:33:08.959
오늘 마지막으로 봐야
되는 것들이 뭐냐면,

00:33:09.059 --> 00:33:14.000
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 단어
형성법을 배울 거예요.

00:33:14.100 --> 00:33:15.823
정말 제일 어려워.

00:33:15.923 --> 00:33:19.549
단어 파트에서 제일 어려운
끝판왕이 단어 형성법이에요.

00:33:19.649 --> 00:33:22.096
그거를 배우기 전에 일단
기본적으로 이것을 알아야 돼요.

00:33:22.196 --> 00:33:24.126
단어의 구성 요소.

00:33:24.226 --> 00:33:28.693
그래서 단어를 구성하는
요소는 어근과 접사다.

00:33:28.793 --> 00:33:31.089
어근은 무엇이나?

00:33:31.189 --> 00:33:42.875
어근은 단어에서 실질적인
의미 부분이다.

00:33:42.975 --> 00:33:46.284
용언으로 치자면 어간.

00:33:46.384 --> 00:33:49.684
용언으로 치자면 어근이라고 안
하고 어간이라고 하지만.

00:33:49.784 --> 00:33:52.258
실질적 의미 부분을
어근이라고 하고.

00:33:52.358 --> 00:33:53.881
접사는 뭘니까?

00:33:53.981 --> 00:34:10.570

접사는 어근에 붙어서
그 뜻을 제한하거나

00:34:10.670 --> 00:34:14.937

뜻을 강조하거나

00:34:15.037 --> 00:34:19.363

혹은 품사를 바꾸기도 해요.

00:34:22.329 --> 00:34:26.609

이렇게 세 가지 역할을
하는 게 바로 접사다.

00:34:26.709 --> 00:34:29.425

그런데 어근에 붙어서, 라는
말을 보면 의미심장하죠.

00:34:29.525 --> 00:34:33.805

어근에 붙는다고 했으니까 접사는
어근 없이는 못 사는 애예요.

00:34:33.905 --> 00:34:36.572

그래서 접사는 어떤 애다?

00:34:36.672 --> 00:34:40.531

접사는 의존 형태소라는 것을 알
수가 있어요, 이 표를 통해서.

00:34:40.631 --> 00:34:44.001

어근에 붙어야만 되는 애니까
접사는 의존 형태소예요.

00:34:44.101 --> 00:34:49.402

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접사는
의존 형태소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

00:34:49.502 --> 00:34:51.367

한 가지 더 알 수가 있죠.

00:34:51.467 --> 00:34:55.627

어근에 앞에 붙으면 접두사.

00:34:55.727 --> 00:35:00.156

우리 친구들이 접두사와 접미사라는
개념을 이미 알고 있더라고요.

00:35:00.256 --> 00:35:03.888

애들아, 어떻게 접두사,
접미사를 알고 있어?

00:35:03.988 --> 00:35:06.867

그러니까 영어 문법
배울 때 배웠대요.

00:35:06.967 --> 00:35:10.574

중학교 1학년 때 문법 배울 때
접두사, 접미사라는 개념을

00:35:10.674 --> 00:35:12.803

그 때 배웠다 그래서 그렇구나.

00:35:12.903 --> 00:35:15.713

그런데 접두사, 접미사가
국어 문법에도 있어요.

00:35:15.813 --> 00:35:20.166

어근 앞에 붙으면 접두사가 되는
거예요, 머리 두 자 써서.

00:35:20.266 --> 00:35:24.469

그다음에 접사가 어근 뒤에
붙으면 꼬리 미 자 써서

00:35:24.569 --> 00:35:28.775

접미사가 되는 거예요.

00:35:28.875 --> 00:35:31.504

이런 개념을 뽑아낼 수 있고.

00:35:31.604 --> 00:35:36.545

그다음에 뜻을 제한한다는
것은 뜻을 고정한다는 거죠.

00:35:36.645 --> 00:35:44.412

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
제가 설명을 해놨죠?

00:35:47.567 --> 00:35:53.755

교재 70쪽에 보면
햇과일 나와 있어요.

00:35:53.855 --> 00:35:58.660

햇과일 보면 과일이
어근이고 햇이 접두사죠.

00:35:58.760 --> 00:36:03.497

햇이 그 해에 생산된,
올해에 생산된.

00:36:03.597 --> 00:36:08.261

그래서 과일인데 올해 생산된
과일이라고 뜻을 고정시켜버리잖아요.

00:36:08.361 --> 00:36:09.815

뜻을 제한시킨 거고.

00:36:09.915 --> 00:36:14.985

뜻을 강조한다, 새파랗다
경우에 그렇죠.

00:36:15.085 --> 00:36:18.664

아주 파랗다, 파랗다를
아주 강조하는 거죠.

00:36:18.764 --> 00:36:24.202

품사를 바꾸기도 합니다.

00:36:24.302 --> 00:36:27.430

예를 들면 놀이.

00:36:27.530 --> 00:36:34.236

놀다의 놀, 여기 어근에 명사,
접미사 이가 붙어서 놀이.

00:36:34.336 --> 00:36:35.717
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?

00:36:35.817 --> 00:36:40.556
놀다, 라는 것이 동사인데
동사를 명사로 바꿨잖아요.

00:36:40.656 --> 00:36:43.292
품사가 체인지됐죠.

00:36:43.392 --> 00:36:49.076
그런데 품사를 바꾸는
접사는 주로 접미사이고

00:36:49.176 --> 00:36:52.075
접두사도 일부는
메마르다 같은 거 보면

00:36:52.175 --> 00:36:54.524
일부는 접두사가 품사를
바꾸기도 하는데

00:36:54.624 --> 00:36:58.847
대부분 접미사가 품사를 바꿉요.

00:36:58.947 --> 00:37:01.284
앞에 있는 품사를 바꿉니다.

00:37:01.384 --> 00:37:03.379
참고로 그냥 가볍게
알아두셔도 돼요.

00:37:03.479 --> 00:37:07.049
그래서 이 정도로 기본
개념을 장착하시고

00:37:07.149 --> 00:37:12.056
다음 시간에 단어 형성법을
공부하면 됩니다.

00:37:12.156 --> 00:37:15.801
그래서 어근, 접사의
개념 챙겨두시고

00:37:15.901 --> 00:37:17.839
다음 시간에 단어의
형성 들어갑니다.

00:37:17.939 --> 00:37:21.072
그러면 우리 오늘 뭐 해야 돼요?
이대로 끝나는 거예요?

00:37:21.172 --> 00:37:24.469
아니죠, 배웠던 거 확인해야죠.

00:37:24.569 --> 00:37:28.168
문법 화룡점정 O, X 퀴즈!

00:37:28.268 --> 00:37:31.731

두 문제, 바로 정답
나와야 되는데.

00:37:31.831 --> 00:37:36.070

나왔죠? 정답 나왔으면
수강 후기에 올려주세요.

00:37:36.170 --> 00:37:38.946

그러면 제가 또 정답! 정답!

00:37:39.046 --> 00:37:43.414

혹은 틀렸어, 이런 식으로
댓글을 달아드릴 테니까요.

00:37:43.514 --> 00:37:46.526

우리 친구들 열심히 수강 후기에
정답 올려주시기 바랍니다.

00:37:46.626 --> 00:37:50.375

그러면 다음 시간에 단어
파트에서 어려운 부분,

00:37:50.475 --> 00:37:55.939

단어 형성법과 그다음에
단어들의 의미 관계 부분을

00:37:56.039 --> 00:37:57.567

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.

00:37:57.667 --> 00:38:02.630

또 많이 기대해주시고 다음 시간도
동준 쌤과 파이팅 넘치는 상태로

00:38:02.730 --> 00:38:05.130

국어 문법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.

00:38:05.230 --> 00:38:08.982

생강 국어 문법 마무리
멘트하고 마칠게요.

00:38:09.082 --> 00:38:14.531

최후의 승리자는 바로 여러분입니다.